



초지일관 하던 대로... 최형우의 믿음

KIA타이거즈의 최형우가 '하던 대로' 새로운 시즌을 준비한다.

KIA의 4번 타자 최형우를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는 단어는 '꾸준함'이다. 묵묵히 자리를 지키며 차곡차곡 쌓은 기록은 최형우를 이야기해준다.

올 시즌에도 최형우는 900득점(통산 22번째)을 시작으로 3100루타(10번째), 12년 연속 10홈런(7번째), 1200타점(5번째), 300홈런(13번째), 7년 연속 200루타(8번째), 6년 연속 100안타(10번째) 등을 이뤄냈다.

초반 부진과 허리 통증에도 최형우는 136경기에 나왔고 타율 0.300, 137안타, 17홈런, 86타점, 65득점으로 2019시즌을 마무리했다.

'간절함'과 '평정심'은 최형우를 표현할 수 있는 또 다른 단어다.

전주고를 졸업하고 2002년 삼성 유니폼을 입은 최형우는 2005시즌이 끝난 뒤 방출의 아픔을 겪었다. 경찰야구단에서 이를 악문 최형우는 2008년 삼성에 재입단해 '방출 선수 신화'를 썼다.

팀은 물론 KBO리그의 중심타자로 매년 자신의 기록을 새로 써 내려가면서도 최형우의 소감은 "하느님 보니까 됐다"로 늘 같다.

올 시즌에도 의미 있는 기록들은 채웠지만 최형우에게는 아쉬움이 많이 남는 2019시즌이었다.

중심타자로서 파괴력이 부족했고 무엇보다 베테랑 선수로서 팀의 추락을 막지 못한 게 가장 미안하고 아쉽다.

2019시즌의 아쉬움을 뒤로 하고 최형우는 '하던 대로' 관에서 2020시즌을 시작할 예정이다.

우여곡절 데뷔초

고교 졸업후 삼성 입단 3년만에 방출 더 치고 더 똘 경찰야구단 생활 삼성 재입단 신화...FA로 KIA 이적

한결같은 프로생활

매 경기 간절한 마음 성실한 자세 900 득점·12년 연속 10 홈런 1200 타점·300홈런 등 이뤄

2020 시즌 '다시 시작'

마무리 캠프서 자율훈련 4kg 감량 유민상 등과 콤파서 사전 캠프 계획 모교 찾아 일일코치 등 재능 기부도

대로' 관에서 2020시즌을 시작할 예정이다. 최형우는 최근 몇 년간 콤파서 사전 캠프지로 삼아 구슬땀을 흘렸다.

비활동 기간인 1월 따뜻한 관에서 몸을 만든 뒤 팀의 스프링캠프에 합류해 본격적인 시즌 준비를 하는 게 최형우의 루틴이었다.

하지만 2019시즌을 앞두고 최형우는 콤파서 캠프를 건너뛰었다. 지난 1월 첫아들이 태어나면서 아빠의 역할에 집중해야 했기 때문이다.

"올 시즌 성적이 좋지 못하다 보니까 괜히 와이프가 미안해하더라"며 웃은 최형우는 "1월에 아이 돌간치가 있어서 예년보다는 출발이 늦지만 익숙한 관에서 시즌을 준비할 생각이다"고 언급했다.

이번에는 후배 이창진, 유민상을 이끌고 콤파서로 건너갈 생각이다.

최형우는 "그동안 나와 캠프를 같이 한 선수들이 나름 잘 됐다"며 "2018년에는 하재훈(SK)과 이대은(KT)이 함께 했었다"고 귀띔했다.

콤파서로 건너가기에 앞서 최형우는 챔피언십필드를 부지런히 오가면서 훈련을 하고 있다. 마무리캠프 기간에도 최형우는 자율 훈련을 하면서 4kg가량 체중 감량도 했다.

마음 따뜻한 일도 했다. 최형우는 지난 6일 모교인 전주 진북초를 찾아 '일일 코치'가 되어 진북초, 군산남초, 군산중앙초, 군산신동초 야구부 학생들을 대상으로 야구 캠프를 진행했다.

좋은 일에 유민상, 최원준, 임기영, 이민우, 이창진 등 KIA 후배들은 물론 박해민, 박계범(이상 삼성)도 팔을 걷어붙이면서 행사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KIA는 역대 첫 외국인 감독을 앞세워 왕조 재건을 준비하고 있다. 최형우가 2019시즌의 아쉬움을 털어내고 '윌리엄스호'의 중심이 되어 강렬한 2020시즌을 만들어낼 수 있기를 주무늬다.

/김여을 기자 wool@kwangju.co.kr

김광현, ML 세인트루이스 입단 하나

메디컬 테스트·협상 위해 미국행

한국 야구 좌완 에이스 김광현(31)이 미국프로야구 내셔널리그(NL) 중부지구 강자 세인트루이스 카디날스와의 협상을 위해 미국에 갔다.

김광현은 16일 미국으로 떠나 17일에 도착했다. 목적은 확실하다. 세인트루이스 구단은 김광현에게 입단 제의를 하며 '메디컬테스트'를 요청했다.

김광현은 출국 전 "최종 결과가 나온 다음에 말씀드리고 싶다. 출국 사실이 알려지는 것도 부담스럽다"고 조심스러워했다. 그러나 세인트루이스와의 협상은 속도를 내고 있다.

세인트루이스 구단 관계자는 17일 "김광현 영입은 극비리에 진행 중인 사안"이라고 밝혔다. 메디컬 테스트를 제안한 건 이미 어느 정도 협상이 진행됐다는 의미다. 물론 김광현 측은 샌디에이고 파드리스, 시카고 컵스 등 현지 언론이 "김광현 영입에 관심을 보인 구단"으로 꼽은 팀들과의 협상 장구도 열어들 전망이다.

선발전 보강이 절실한 세인트루이스는 포스팅(비공개 경쟁입찰)으로 김광현을 '영입 리스트'에 올렸고, 가장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메디컬테스트 결과가 나오면 구체적인 협상을 시작한다.

세인트루이스는 에이스 잭 플래허티, 마일스 마

이컬러스, 다코타 허드슨 등 꽤 견고한 1~3선발을 갖췄다. 하지만 마이클 와카가 자유계약선수(FA) 자격을 얻어 뉴욕 메츠로 떠났고, 애덤 웨인라이트의 불펜 전환 가능성도 제기돼 선발전이 공백이 생겼다.

세인트루이스는 2016년 오승환(삼성 라이온즈)을 영입했다. 김광현이 세인트루이스와 계약하면, 구단에서 뛰는 두 번째 한국 선수가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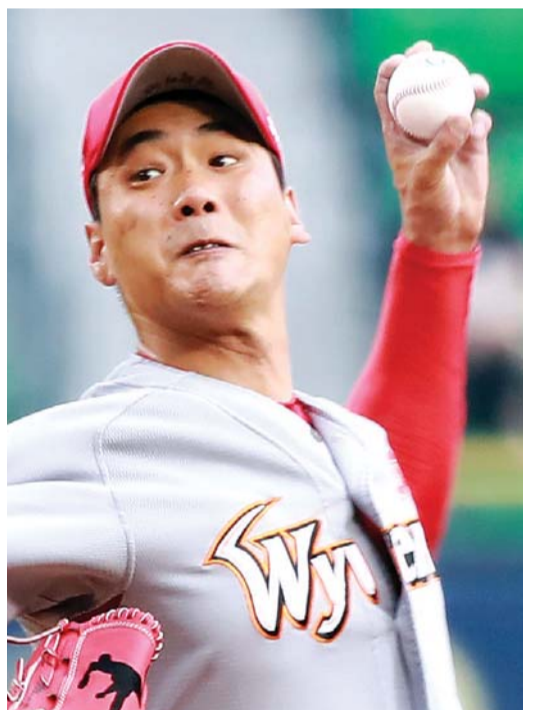
김광현은 2014년 말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와 입단 협상을 했다. 당시 포스팅 시스템은 최고액을 써낸 한 구단이 단독 교섭권을 가진 형태였다.

포스팅 비용 200만달러에 단독 협상권을 얻은 샌디에이고는 김광현을 현지로 초청하며 협상을 시작했으나, 연평균 보장이 100만달러 수준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광현은 결국 샌디에이고의 제안을 거절하고 SK 와이번스와 재계약했다.

올해는 다르다. 김광현은 2017년 1월 왼쪽 팔꿈치 인대 접합 수술을 했고 이후 전성기 시절의 구위를 되찾았다.

타고투저가 지배한 2018년에도 11승 8패 평균자책점 2.98로 호투했고, 공인구 반발력을 낮춘 2019년에는 17승 6패 평균자책점 2.51의 더 뛰어난 성적을 냈다.

김광현의 포스팅 마감 시한은 1월 6일이다. 아직



시간이 있지만, 세인트루이스가 협상에 속도를 낸다면 이번 주 안에 결론이 날 수도 있다.

한편 세인트루이스는 메이저리그 30개 구단 중 뉴욕 양키스(27회)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11차례 월드시리즈 정상을 밟았다. 내셔널리그에선 월드시리즈 최다 우승 이력을 지닌 명문 구단이다.

/연합뉴스

문경준, KPGA 4관왕

최저타수·제네시스 대상 등

문경준(37)이 한국프로골프(KPGA) 제네시스 대상 시상식에서 4관왕에 오르며 2019시즌을 마무리했다.

문경준은 17일 오후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 서울 호텔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제네시스 대상을 비롯해 최저타수상(덕춘상), 선수들의 투표로 받는 '스포츠투트 해피투게더상', 기자단이 선정한 '베스트 플레이어 트로피'까지 4개 부문에서 상을 받았다.

2015년 GS칼텍스 매경오픈에서 우승한 문경준은 올해 우승은 없었지만, 준우승 1회를 포함해 톱10에 7차례나 이름을 올리고, 출전한 모든 대회에서 컷을 통과했다.

문경준은 시상식에서 한 달 전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전했다.

문경준은 수상 소감을 밝히면서 팬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고 "돌아가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겠다"고 말했다.

내년에는 유럽프로골프 투어와 아시아 투어를 겸하겠다는 문경준은 19일 태국에서 열리는 태국 오픈에 출전하기 위해 밤 비행기를 탄다.

현대해상 최경주 인비테이셔널에서 우승한 이수민(26)은 4억6900만원으로 한 시즌 개인 최다 상금을 쌓아 투어 데뷔 이후 처음으로 상금왕에 올랐다. 이수민은 태국 오픈에 출전하느라 시상식에는 나오지 못했다.

우성종합건설 아리마리CC 부산경남오픈에서 정상에 오른 이재경(21)은 신인상(명출상)을 받았다.

평균 드라이브 거리 303야드를 기록한 서유섭(23)은 'BTR 장타상'을 차지했다.

2018-2019시즌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신인상을 받은 임성재(21)는 해외 특별상을 수상했다.

15일 호주에서 끝난 골프대항전 프레지던츠컵에서 활약을 펼치고 돌아온 임성재는 "다음 시즌에는 메이저 대회에 집중해 우승하고, PGA 투어 최종전 투어 챔피언십에 또 나가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날 시상식에는 양휘부 현 회장을 이어 내년 1월부터 KPGA를 이끄는 구자철 신임 회장도 인사말을 했다. 구 회장은 "골프팬들의 요구가 무엇인지 선수들과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PGA 주목받는 임성재

활약 기대되는 선수 30인 선정

임성재(21)가 미국프로골프(PGA) 투어의 '2020년 주목할 선수 30명' 중 한 명으로 뽑혔다.

PGA 투어는 17일 홈페이지에서 2018-2019시즌 PGA 투어 신인상을 차지한 임성재가 2020년에도 활약할 것이라며 이같이 선정했다.

PGA 투어는 "임성재는 지난 시즌 35개 대회에 출전해 톱10에 7차례, 톱25에 16차례 드는 성적을 내고 신인왕을 차지했다. 그러나 수차례 캐디를 교체한 것에서 그가 얼마나 우승을 원하는지 알 수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임성재가 2019-2020시즌 들어서도 샌더스 팜스 챔피언십 2위, 조조 챔피언십 공동 3위 등으로 좋은 기세를 유지하고 있다면서 "그의 첫 PGA 투어 우승은 조만간 나올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 임성재가 많은 대회에 출전했다는 점에서 "그는 PGA 투어의 아이언맨"이라고 부르기도 했다.

PGA 투어가 선정한 2020년 주목할 선수 30명에는 타이거 우즈, 케리 윌랜드, 매슈 윌프, 저스틴 토머스, 조던 스피스, 애덤 스콧, 저스틴 로즈, 패트릭 리드, 윤 판, 필 미켈슨, 로리 매길로이, 브룩스 켈카, 더스틴 존슨 등이 이름을 올렸다.

임성재는 지난해에도 PGA 투어 홈페이지에서 '주목할 선수 30명' 중 하나로 언급됐다. /연합뉴스